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14차 회의

1. 일 자 2006년 7월 7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78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79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80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3)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과 그동안의 원화환율 하락 등이 내년중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중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신장률이 금년보다는 크게 낮지 않을 것이고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수입수요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 평균치보다는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내년중 우리나라 수출은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사무실 공실률 추이, 주택경기 전망,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BTL(Build-Transfer-Lease) 사업 등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올해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외에도 민간주도의 BTL 사업과 달리 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국책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힘입어 내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과거 북핵사태시의 전개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비용측면과 수요측면 중 어느 부분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는 비용측면의 영향은 상반기와 비슷한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의 효과가 금년 하반기 이후에 현재화되면서 수요측면의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승용차요일제 확대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량, 대중교통요금 등에 유의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점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그동안 단위노동비용의 안정이 물가안정 추세의 한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산별 노조의 형성이 단위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지난 6월말 외평채 가산금리가 80bp에 이른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영향인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평채 가산금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인 6월 28일에 이미 81bp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며칠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사일 발사 사태가 외평채 가산금리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과거 북핵사태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북한의 핵동결 파기선언 직후인 2002년 12월 중순부터 2003년 1월 중순 기간중 원화환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외국인주식거래는 매도와 매수가 혼조세를 보였으며 외평채 가산금리는 15bp 내외 상승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동 위원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세계경제의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점진적으로 순조롭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강대국의 이해상충에 따라 급속히 조정되어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져 원화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6월중 은행 금전신탁과 MMDA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법인MMF 익일매수제 시행 등으로 MMF에서 이탈한 기업보유 자금이 금리조건이 좋은 이들 상품으로 유입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하반기 중소기업대출 및 기업자금사정 전망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중소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설비투자가 계절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하반기 중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은 상반기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사모방식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사모회사채가 공모회사채에 비해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발행수수료도 절감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6월말 이후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함께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의 둔화 우려심리 이외에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의도간 괴리가 존재하는 데도 일부 기인한다고 생각하므로 양자간 괴리를 좁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장기시장금리 하락은 국내금융시장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발표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보며 시장의 기대와 정책의도간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당행의 정책의도를 금융시장에 적절한 신호로 전달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제로 금리조정 전부터 시장금리 및 환율에 시장의 금리조정 기대가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시장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환율의 급변동 등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

대가 중앙은행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당국의 시각과 달리 일부에서 하반기 이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기준으로 다소 낮아지겠으나 지난해 2/4분기 이후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스왑레이트(swap rate)의 급격한 하락이 원화대출 금리를 낮추어 지난해 10월 이후의 네 차례 금리인상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동 위원은 금융시장에 정책금리 추가인상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간 당행이 실물경제 회복에 상응하여 정책금리를 중립수준에 가깝게 운용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시장에 일관되게 전달한 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당행 시각과 달리 심리지표는 계속 부진한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비자대지수 등의 심리지표는 조사시점 당시의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여건 등 경기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물경제지표와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로 우리나라가 지닌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등으로 이어져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민간의 소비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그같은 상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과거 유사한 사례와 경험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 및 조정폭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조정과정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 및 터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경제상황 및 정책대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착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물가 면에서, 풍부한 시중유동성, 환율과 원자재가격 불안, 중국의 물가오름세 확대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6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2% 하락하고 금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4%에 그쳐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가격도 정부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6월 들어 안정세로 진입한 것으로 생각됨; 셋째, 경기 면에서, 수출이 매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심리지표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점이 우려됨. 이러한 성장세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지 여부는 경기순환이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여건 변화 및 내년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기부양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히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진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융 및 실물경제의 국내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물가 면에서, 6월중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년동월대비 2.2%를 기록하여 물가안정목표 범위 하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국제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경기회복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현재의 추세가 금년 하반기를 거쳐 내년

까지 지속될 경우 물가의 상방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경기 면에서,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하락과 심리지표 악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셋째, 금융시장에서는 네 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사정이 여전히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넷째, 대외여건 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유입되었던 자본이 이탈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거시경제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환율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부문의 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지난달 정책금리 인상 영향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부채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 우리 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목표범위 내로 유지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가, 환율 등의 추이와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성장,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 면에서, 금년에는 연간 5%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됨. 특히 환율, 유가 불안에 더해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물가는 5월 이후부터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당분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목표범위 내에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지적인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생각됨; 셋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안감이 혼재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경기흐름을 점검해 볼 때 현재의 경기 상승기조는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수출과 민간소비가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다만 경기의 하방위험으로 대두된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의 전개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임; 둘째,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와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등이 정책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보다 신중해지고 있어 금융완화의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셋째,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볼 때 콜금리 목표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겠으나 인상 시기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와 물가 및 경기의 상하방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착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증대로 인한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둘째, 물가는 현재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에 따른 GDP갭 축소, 고유가 지속 등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셋째, 최근 신흥시장국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이 경착륙(hard landing)하는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우려가 있음; 넷째, 6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약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인 위험 증대가 경기 둔화, 자금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완화의 정도를 좀 더 축소한다는 정책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상승세가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뒷받침할 만큼 강하지는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국내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해외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수요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를 제외한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국내 경제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둘째, 물가는 수요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가격은 향후 추이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음; 셋째, 금융상황을 보면 금융기관 대출 증가세와 여타 관련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시중 자금사정이 여전히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완화 축소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그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4)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실물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확대 및 대외배당금 지급 축소 등으로 흑자로 돌아섰음

- ☐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
- ☐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2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I.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1/4분기 GDP성장률이 5.6%(연율)를 기록하고 5월중 제조업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다만 5월중 산업생산 및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높은 오름세(전월대비 : 4월 0.6% → 5월 0.4%)를 이어갔음

중국경제는 5월중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산업생산 및 고정자산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일본경제는 1/4분기 GDP 성장률이 3.1%(연율)를 기록한 가운데 5월중 소비 및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하였음

유로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4월중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5월에도 주요 경기심리지표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6월중 주요국 주가는 금락후 반등하였음. 미국 주가는 월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기업실적 호조, FOMC회의(6.29일)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완화 등으로 반등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도 ECB 금리인상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주가도 하락세에서 중순 이후 일본경기 회복지속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였음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6월 들어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으로 큰 폭 상승(6.28일 5.25%)하였다가 월말경 그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반락(6월말 5.14%)하였음

미 달러화는 5월 중순 이후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6.29일 FOMC 회의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강세폭이 축소되었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5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6월 중순 이후 이란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은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예상 등으로 월중으로는 2005.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반전(6월중 -1.3%)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소비는 회복기조를 유지하였음. 5월중 소비재 판매는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 4월 5.1% → 5월 5.8%)되었으며 6월에도 백화점 매출 및 할인점 매출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음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세를 이어갔음. 5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반사효과 등의 영향으로 기계류투자가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하락(전년동월대비 : 4월 7.1% → 5월 2.1%)하였으나 4~5월중으로는 1/4분기(4.3%)와 비슷한 4.5%의 증가율을 보였음. 또한 국내기계수주도 호조세를 지속(4월 15.3% → 5월 12.7%)하였음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되었음. 5월중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은 민간건설이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더욱 둔화(전년동월대비 4월 2.0% → 5월 0.9%)되었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3개월 연속 큰 폭 줄고(3월 -34.5% → 4월 -18.8% → 5월 -17.9%) 건축허가면적도 감소폭이 확대(4월 -8.2% → 5월 -21.1%)되었음

5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동신 등을 중심으로 12.2% 증가하는 등 건실한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생산호조를 반영하여 전월보다 상승(4월 79.0% → 5월 80.5%)하였음. 한편 재고율(계절조정 재고지수/출하지수 × 100)은 4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

서비스업활동도 건실한 신장세가 지속되었음. 5월중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이 호조를 지속하고 도소매업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전월(5.8%)과 비

슷한 5.5% 증가를 나타내었음

고용사정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유지하였음. 5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다소 축소(4월 +31만명 → 5월 +29만명)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강우일수 감소 등으로 농림어업 및 건설업 취업자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전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3월 +2.3만명 → 4월 +2.0만명 → 5월 +5.7만명)하였음. 5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4%로 전월보다 0.1%p 하락하였음

4월중 임금상승률은 정액 및 초과급여가 전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특별급여가 감소로 전환하여 전월(5.8%)보다 둔화된 5.3%를 기록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6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3.7%)과 석유류(-0.2%) 등의 공업제품가격(-0.2%) 하락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상승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였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오름세가 둔화(5월 1.2%)되었음. 계절적 비수기 및 규제강화 등으로 강남(0.7%) 및 분당지역(0.3%)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축소되었음. 아파트 전세가격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둔화(5월 0.5% → 6월 0.1%)되었음

다. 대외거래

6월중 수출은 선박, 기계류,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9.2% 증가하는 호조를 지속하였음. 월중(282.7억달러), 일평균(12.3억달러)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6월중 수입(260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하였음. 원유수입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재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5월중 경상수지는 4개월만에 흑자로 전환(4월 16.1억달러 적자 → 5월 12.7억달러 흑자)하였음.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데다 대외배당금 지급 요인 해소로 소득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 기인하였음

II. 외환 · 국제금융 동향

1. 환율

6월말 원/달러 환율은 948.9원으로 전월말대비 3.3원 상승(월중 0.3%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955.3원으로 전월대비 14.1원 상승(월중 1.5% 절하)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선물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 약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및 외국인의 역외선물환(NDF) 매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월말일에 일본 엔화의 큰 폭 강세 전환 및 수출대금 공급 증가로 크게 하락(-11.7원)하여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6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828.5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15.4원 하락(월중 1.9% 절상)하였음. 원/달러 환율에 비해 엔/달러 환율이 더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임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6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0.6%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6월중 경상거래는 전월(13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25억달러)되었음. 무역거래는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월(26억달러)보다 크게 확대(42억달러)되었고 무역외거래는 소득거래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13억달러)보다 증가(-17억달러)하였음

6월중 자본거래는 순유출규모가 전월(-89억달러)보다 대폭 축소(-38억달러)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이 둔화되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전월(-85억달러)보다 순유출규모가 크게 축소(-36억달러)되었음. 단기자본거래도 무역신용 도입 등으로 순유출 규모가 전월(-5억달러)보다 축소(-2억달러)되었음

6월중 금융거래는 순유입규모가 전월(89억달러)보다 대폭 축소(13억달러)되었음. 국내은행은 외화대출 등을 위해 해외차입을 늘림에 따라 전월 수준의 순유입(20억달러)이 지속된 반면 외은지점은 본지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월의 큰 폭 순유입(70억달러)에서 순유출(-10억달러)로 전환되었음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6월말 외환보유액은 2,244억달러로 월중 3억달러 감소하여 전월의 증가(18억달러)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음. 운용수익 등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강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6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250억달러로 월중 19억달러 증가에 그쳐 전월(105억달러)에 비해 증가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 장기외채는 국내은행의 해외외화증권 발행 및 조선업체의 선박수출 선수금 영수 등으로 19억달러 증가하였으나 단기외채는 전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음

한편 순대외채권은 총대외채권이 증가(13억달러)하였으나 총외채가 더 크게 증가(19억달러)함에 따라 전월말보다 6억달러 감소한 1,090억달러로 추정됨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6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다소 악화되었음. 외평채 가산금리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에 따른 국제유동성 축소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관련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평균차입기간 축소로 하락하였음

6월중 국내은행은 만기도래액보다 큰 규모를 차입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에 비해 11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화대출은 스왑연계외화대출 상품의 판매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31억달러)되었음

5. 국제금융시장

6월중 미국 주가는 하락하였음. Dow Jones 지수 및 Nasdaq 지수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 유지 예상,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하락하였다가 월말에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로 큰 폭 상승하여 하락폭이 축소되었음(Dow -0.2%, Nasdaq -0.3%)

6월중 독일주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프랑스 주가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개선 전망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독일 -0.2%, 프랑스 0.7%). 일본 주가는 전월의 주가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0.2%)

6월중 미 달러화 환율은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시현하였음. 유로화는 ECB의 금리인상폭 예상치 하회, 유로지역 재무장관들의 유로화 강세에 대한 우려 표명 등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음(0.2% 절하). 일본 엔화는 미·일간 금리격차 확대 예상 등으로 상당폭 약세를 보였음(2.2% 절하)

6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조 유지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음.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미국의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 시사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장기금리도 물가상승 예상으로 상승하였음

6월중 미 연준, ECB 등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음

III.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콜금리목표 인상 및 추가 인상 기대, 美 국채 수익률 상승,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6월 말부터는 美 정책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반락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도 정책금리 추가 인상 기대, MMF 대규모 환매에 따른 CD 매입수요 위축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수익률 곡선은 10년 이상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함에 따라 더욱 평탄화되었음

한편 한·미 장기금리격차(국채 10년물 기준)는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월말 대비 소폭 확대되었음

6.1~25일중 은행 수신금리는 콜금리목표 인상의 영향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대다수 은행들이 6.12일부터 예금금리를 10~30bp 인상 조정함에 따라 6.19~25일중 평균 금리는 2주전 대비 16bp 상승하였음

여신금리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CD 유통수익률 등 시장금리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 조정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여신금리의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었음. 다만 중소기업대출금리는 대출확대 경쟁,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축소 등으로 6.19~25일 금리가 2주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였음

코스피지수는 월초 주요국 주가 약세, 외국인 순매도 지속, IT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월말경 美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당폭 반등함에 따라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한편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월말 이후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음.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지속하였음

2. 통화총량

6월중 M2증가율은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해외증권투자 감소, 외국인주식자금 유출 둔화 등으로 국외부문의 통화환수폭이 축소된 데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상승한 7%중반으로 추정됨

법인MMF가 제외된 새 M1은 지난해 6월중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MMF(법인MMF 포함) 등에 단기 대기성자금이 몰리면서 M1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여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며 법인 및 개인 MMF 모두를 제거한 M1-MMF 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8%내외 수준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6월중 은행수신은 정기에금이 특관 및 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호조를 이어간 데다 MMDA가 MMF 이탈자금의 유입으로 큰 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한편 은행채는 순발행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가 단기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 하락,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법인MMF에 대한 익일매수제 시행(7.1일)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대폭 줄어듦에 따라 큰 폭 감소로 반전하였음. 한편 주식형펀드는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채권형펀드는 단기형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6월중 단기수신 비중은 51.5%로 소폭 하락하였음

4. 기업자금

6월중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규모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월 실적을 상회하였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3.0조원 늘어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중소기업대출은 3.1조원 증가하여 전월 실적을 하회하였으나 반기말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증가규모는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소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회사채의 경우 공모발행은 순상환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 사모발행은 3.2조원으로 전월실적을 상회하였음

CP(6.1~25일중)는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MMF 자금인출 등으로 0.6조원 순상환되었으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로 전월보다 확대되었음

어음부도율 및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중소기업 부도업체수가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5월말 지방선거일 임시 휴무에 따른 이월분에 크게 기인함

5. 가계신용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금감원의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민간소비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중 기념일 등에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도래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6.20일 현재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5월말 현재 전업카드사 및 은행겸영 카드부문의 연체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